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학교교육이 죽으면 국가의 장래가

군사부일체. 요즘 이런 말을 한다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냐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니 교권이 아니라. 대통령이냐 부모의 권위도 추락했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추락된 면에서만 보면 군사부일체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반면에 학생들의 인권은 많이 신장된 것 같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신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 시기는 아직 인격의 미완성단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라나는 나무와 같이 때문이다.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위질을 해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올바른 도덕과 양심을 심어줘야 한다. 그 시기를 놓치면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와 교사다. 즉, 올바른 가정교육과 학

교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두 개의 축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올바른 인간상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목적지를 향해 순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우선 가정교육부터가 문제다. 가정에서 부모는 오로지 남을 이기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1등주의만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자녀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과는 놀지도 못하게 한다.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나 무라지를 얹는다. 공동생활을 해치는 일을 해도 모른 채 한다. 부모 자신부터가 어린 자녀들과 동등하게 운전하면서도 교통신호를 어기는 경우도 많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대로

확실히 간다.

특히 교사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상당수는 자녀를 앞에서 교사를 무시하는 소리를 해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학교에까지 찾아가서 폭행을 해댄다. 그것도 자녀를 비롯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폭언까지 곁들여가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올바른 인격이 함양 되겠는가.

언제가 교복의 절도를 부추겼다가 발각되자 교사의 상담을 받던 중학생 2명이 실제로 교복을 훔친 급우를 보복 폭행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고등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압수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로 찾아가 제지하던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런 행태들은 시정잡배들이

우글거리는 비행의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수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교육현장이다. 이의 근본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교육이다. 때문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교육은 가정교육의 보완이다. 그리고 발전을 더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어느 정도의 적절한 체벌권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학교교육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력과 욕설을 당하고 인터넷 등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그 누가 소신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학교교육이 죽으면 국가의 장래가 어두워진다. 암흑의 천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때문에 교권을 확립하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진정한 교육자적 정신을 가진 교사에게 한해서.

社說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해야

국제유가 상승으로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니 기대가 크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피서지에서의 요금 과다인상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다. 정부는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물가흐름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겠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상반기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농·축산물물은 기상 악화, 병충해 등으로 불안 요인이 있고 석유류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공공요금 등 서비스 물가에도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산물에 대해 생육기도를 강화하고 예비 모종을 공급해 피해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배추 6500, 양파 1만 등 비축물량도 확보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올리되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통한 석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10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휴가철인 오는 7~8월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소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서지 현장을 돌며 요금 과다인상, 먹거리 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의 과다인상과 이를 위한 담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피서지 인근에는 부담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민들이 물가 걱정 없는 휴가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圖 寫 禽 獸

圖 寫 禽 獸

▷ 뜻: 공전(公戰) 내부(內部)에는 유명(有名)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조각 등(等)으로 장식(裝飾)되어 있음.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

고혈압 있는 분들, 나도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어쩌나 걱정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뇌졸중,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 하는데 중은 적정할 중, 풍은 바람 풍으로 바람을 맞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풍을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기후적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눈다.

중풍은 한번 걸리고 나면 치료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인들은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즉 중풍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우는 중풍의 전조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증상이 가볍게 오는 경우 환자 대부분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때론 전조증상이 오고 있음에도 환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치료를 하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전조증상에는 머리끝에서 시작해서 눈이나 입, 팔다리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우선 머리 쪽부터 살펴보면 평소와 달리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중풍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입이 갑자기 풀이어나거나 말이 둔해지거나 음식물이 잘 삼켜지지 않는 경우도 전조증상으로 보는 것이 좋다.

또한 한쪽 팔 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 손가락 감각이 둔해지거나 마디감이 생기는 경우 역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고 그를 통해 스트레스나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조증상을 겪은 경우 증상이 없어졌다 해도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좋겠다. 순환계,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없는 음식을 먹고 채소를 잘 먹도록 한다.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한 비만 예방,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고가 가장 필요하다.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 속에 긴장하며 살아가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게 되어 이것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누누이 강조한 대로 금연과 금연은 필수이겠다.

김형필 / 화순농주119안전센터 소방장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문화용성' (Munhwayongseong) featuring two women and the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our positions?). It promotes a Korean culture and industry foundation.